

쓰기 문법 설명

Avst고자

Avst 고자 합니다

-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이나 의도, 희망, 바람 등을 나타낸다. -고자에는 `~았/었` 이나 `~겠`을 쓸 수 없고, 항상 현재형만 쓰며 뒤의 내용에서 시제를 나타낸다. 앞과 뒤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. 뒤의 내용에는 명령문과 청유문을 쓸 수 없다. 주로 문어체와 격식체에 사용한다.

예문

- 선생님을 만나고자 합니다.(목적)
- 우리는 내일 떠나고자 합니다. (의지, 희망)
-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자원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.

Vst(으)므로

앞의 내용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고, 뒤의 내용은 결과를 나타낸다. `-았/었` 이나 `-겠`을 쓸 수 있다. 앞뒤의 주어가 같거나 달라도 모두 쓸 수 있다. 뒤의 내용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쓸 수 없다. 주로 문어체와 격식체에 사용한다.

예문

-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면 눈의 피로가 심해짐으로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.
- 인터넷 게임은 아이들이 빠져들기 쉬우므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.

Avst고 말다

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일이 결국 이루어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.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쓸 수 없다.

- 그 환자는 수술 중 심한 출혈로 인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
- 한 달 이상 도망을 다니던 범인이 드디어 잡히고 말았다.

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‘꼭’ ‘반드시’ 등의
부사와 함께 ‘-고(야) 말겠다’의 형태로 쓴다.

-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금연에 성공하고 말겠습니다.
-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
밝히고야 말겠다.

Vst(으)며

‘-(으)며’는 동사에 붙어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열할 때 사용한다. ‘-(으)며’는 ‘-고’와 대부분의 경우 바꾸어 쓸 수 있다. 셋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연결할 때는 ‘-고 -(으)며’를 사용한다.

- 봄은 날씨가 따뜻하며 꽃들이 많이 핀다.
-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며 경제의 중심이다.

‘-(으)며’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이나 동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.

- 공연을 보며 식사를 하는 좌석은 일찍 매진되었다.
- 다른 팀의 발표를 들으며 질문할 것을 메모했다.

여간 Dvst(으)ㄴ 일이 아니다 여간 (~부정문)

보통이란 뜻을 가진 부사로서 항상 부정문에 쓰인다.
문장의 형태는 `여간 -지 않다, -여간 이/가 아니다` 이다.
`여간`이 쓰인 문장의 형식은 부정문이지만 실제로는 강한
긍정을 의미한다.

- 한국말 배우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.
- 성격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이닙니다.

Vst기로는 N을/를 따를 N이/가 없다

- 한국말 잘 하기로는 율리아 씨를 따를 사람이 없다.
- 재미있기로는 피터 잭슨 감독의 작품을 따를 영화가 없다.

Avstㄴ/는 다 Avstㄴ/는다하는 것이

동작종사에 붙어서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혹은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뜻대로 안 됨을 나타낸다.

- 선생님 댁을 한번 방문한다 방문한다는 것이 한번도 못 했어요.
- 방을 옮긴다 옮긴다 하는 것이 3년을 그냥 살았어요.
- 부모님 선물을 산다 산다 하는 것이 아직 못 샀습니다.

Avst다가는

앞 문장의 행동을 여러 번 하면 나쁜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.

‘이렇게, 그렇게, 저렇게’ 표현과 잘 어울린다. 짧게 말할 때는 ‘-다간’으로 사용한다.

-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는 큰일 나요.
- 과자를 저렇게 매일 먹다가는 살이 찌 거예요.
- 계속 놀기만 하다가는 시험에 떨어질 거예요.